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경
파견국가	United States	파견도시	Ames, Iowa
파견대학	Iow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4-2학기 ~ 2015-1학기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ISU는 미국 Iowa 주의 중간쯤에 위치한 Ames라는 소도시에 있는 주립대학교이며, 캠퍼스 규모는 굉장히 크고 Iowa 주의 지형적 특성상 전부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탁 트인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넓은 만큼 건물 수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번 지도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p> <p>도시 전체로 따졌을 때 학교 시설은 넓게 분포해 있는데, 풋볼 경기를 위한 스타디움이나 실내 경기장도 있고, 교내에는 학생들을 위해 Gym과 도서관 등이 있으며, 천문학 수업을 위한 플라네타리움도 있습니다.</p> <p>교내 분위기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대체로 날씨가 좋은 데다 아무리 과제나 시험이 많아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가운데에 위치한 넓은 잔디밭에 누워 과제를 하거나 각종 간단한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아 유쾌해 보였습니다.</p>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제가 들었던 수업은 음악감상, 환경문제, 합기도, 의사소통, 기상학이었습니다. 음악감상은 단순한 감상이라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를 요구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각 나라의</p>
	<p>2014-2학기 수업</p>

	<p>문화별 특성과 역사가 접목된 악기에 대해 배운다거나 주요 아티스트들의 생애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Music department에서 여는 콘서트를 8번 출석해야 했던 데다, 학기 중에 시험이 여섯 번 있고 내용도 쉬운 편이 아니라 힘들었습니다. 환경문제 및 이슈 과목은 일반적인 수업에 조 과제가 주어졌는데 현지인들 사이에서 조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합기도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무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멋있었고 저 또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의사소통 과목은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으로 치자면 말하기기법이나 글쓰기기초 과목 같은 필수교양 과목이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유익했지만 교수님의 수업 진도가 굉장히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p> <p>기상학은 여러 기상현상과 그 원리를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상학 용어들이 너무 헷갈렸고 영어 텍스트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매주 퀴즈가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과목이었습니다.</p>
2015-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천문학, 철학, 화학, 영어, 영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천문학은 별 관찰이나 내용 자체는 흥미로웠지만 역시나 천문물리학을 영어로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p> <p>철학은 마찬가지로 내용은 흥미로웠고 유익했지만 영어로 이해하고 매주 레포트를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중간에 드랍했습니다.</p> <p>화학은 실질적인 과학원리보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업했는데, 미국의 지리나 사회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었던 터라 어려웠습니다.</p> <p>영어과목은 교내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영어 작문수업이었습니다.</p> <p>영화 과목은 영화, 음악, 공연이라는 세 가지 예술들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배우고 실제 영화나 음악을 통해 이해하는 과목이었는데 교수님이 설명을 재미있게 잘 하셔서 좋았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그다지 학교의 시설이나 현황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는 주어지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International Office에서 일하는 한국 분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딱히 신경 써 주진 않습니다.</p> <p>외국인 학생으로서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Cultural Ambassador라는 1대1 매칭 프로그램으로 현지 학생과 짝을 지어 도움을 받거나 같이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기후는 6월~9월에는 굉장히 덥지만 습도는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불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글라스와 모자, 선블록은 필수입니다. 4월, 5월, 10월 정도는 이른 아침이나 밤에는 싸늘하고 낮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4~7월 사이 봄, 여름 즈음에는 토네이도가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피소와 대처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봄 학기가 끝난 5월 중순에 근처 마을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었습니다.</p> <p>4월~10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겨울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의 눈이 정말 많이 오며, 온도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있을 당시에는 다행히 영하 30도까지만 내려가는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두툼한 옷을 잘 챙겨 두어야 하며, 털 부츠와 모자는 필수입니다. 바람이 불면 얼굴과 귀가 부서질 것 같이 아픕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작은 시골마을이라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만 다운타운이나 학교 앞의 Welch Street의 경우 새벽 2시까지도 음주를 즐기는 학생들이 많고 개중에 미친 학생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가지 않으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버스가 끊기거나 했을 경우 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Safety Van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전화하면 됩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이 학교에는 실제 기숙사와 기숙사를 가장한 Apartment가 있습니다. Wilson, Willow같은 기숙사의 경우 부엌이 없고 방이 좁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숙사의 형태입니다. 다만 이외에 Frederiksen Court, Maricopa/Walton 등의 경우 계약만 학교를 통해서 할 뿐 일반 주택이나 다름없는 형태입니다. 이런 apartment는 딱히 규칙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숙소를 선택하면 되며 만 4년을 머물러야 하는 일반 학생들은 기숙사보다 외부 apartment를 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이 많이 존재합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V)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부엌이 있는 주택 형식의 기숙사였기 때문에 주로 직접 요리해 먹거나 학교식당, 외부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학교식당은 메뉴가 한정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많은 데다 가격도 비싸서 별로 좋진 않습니다. 밀플랜을 구입한 친구들의 경우 매 학기 말에 밀플랜이 남아서 다 쓰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요리는 마을 내에 Asian Market이 꽤 있고 웬만한 한국 식료품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일단 Ames 내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노선의 버스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소는 버스를 통해 갈 수 있으며, 학생증을 제시하면 요금은 무료입니다. 다만 Ames 밖의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에는 개인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Des Moines (Iowa 주의 주도) 같은 큰 도시로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통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차를 가진 친구들에게 빌붙어 다녔습니다. 미국땅은 미친듯이 넓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 약 1,600,000 편도 약 1,100,000	개인사정 때문에 편도 항공을 구입했지만 웬만하면 왕복을 추천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학교 제공 학생보험비 \$3,600
숙소	기숙사비 \$5,400	
식비	한달 \$400-\$500 정도	
교통비	무료	
책값	대체로 한 권당 \$100-\$200	
기타1		
기타2		
합계	대략 \$1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대체로 학교에 한인학생회가 있을 것이며 미리 가입해서 신입생들을 위한 설명회(주로 학기 시작 한달 전쯤에 한국에서 연다)에 한 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학교 오리엔테이션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좋은 정보들을 준다.

나머지는 솔직히 각 학교나 지역에 따라 달라서 가서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9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뉘는 점도 분명히 있었고, 교환학생을 간 것을 후회하기도 했고 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행사장 풍선인형만큼이나 번덕스러운 생각이 오가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다. 확실한 것은 가기 전에 기대했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천차만별이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지만 딱히 대단치도 않은 것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외딴 섬에 혼자 떨어지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곳의 지리나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적응하기 전까지는 섬에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무인도에 월마트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는 나는 원시인이다, 혹은 몸만 성인인 갓난아기다. 라는 심정으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 그냥 집이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다들 평온해 보이니 나만 이렇게 적응에 어려움을 겪나 하는 생각도 들고, 딱히 울지는 않았는데 기분은 계속 싱숭생숭했다. 물론 적응한 뒤로는 어려움이 귀찮음이 되었지만... 드넓은 미국 땅에서 차가 없다는 건 몸이 고생한다는 뜻이다. 차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덕분에 9개월이 지난 내 두 팔의 근육량은 표준치 이상으로 늘었다. 와우.

처음 은행계좌를 열고 폰을 개통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언어를 쓴다. 라는 것이었다. 아니, 그냥 내가 10년 넘게 배웠던 것이 영어가 아니었던 것 같다. 예상은 했지만 소용은 없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은행과 학교의 온갖 부서 직원들이 이마를 짚고 "Oh, gosh."라고 탄식할 때까지 외쳐 댔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다. 다행히도 대충 넘겨 들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사실 처음엔 유달리 긴장한 상태라 더 안 들렸던 탓도 있다. 두 번째 학기쯤 되니 대충 눈치로 알아듣거나 그냥 넘겼다. 이걸 알아들어야 해! 무슨 의미인지 분석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쳐서 귀찮아졌을 때쯤 되니 오히려 더 잘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없어졌고, 그냥 표현이 안 되는 답답함만 남았다. 우리한테야 영어가 좀 쓸만한 장식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언어라는 걸 제대로 실감하고 나니 그냥 되는대로 내뱉었다. 도저히 표현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Never mind, 다른 얘기나 하자고 말을 돌렸다. 내가 이런 용기를 얻게 된 건 어휘력과 문법이 내 절반 수준 정도 되는 중국인이 나보다 더 말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나서였다. 실력이고 뭐고 그냥 성격이 문제인 것 같다.

사람 사귀는 건 개인차가 있으니 딱히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내가 본교에 있을 때 굳이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외국인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딱히 신경을 안 쓴다. 학기초의 근본 없는 자신감으로 첫 수업에서 신입생으로 보이는 현지 학생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또 다른 현지 학생이 나타나자 즉각 내 말을 씹고 그 학생과 친해지기 바빴다. 속으로 온갖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가 굳이 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과 친해질 필요는 없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말 느린 외국인을 참아 줄 인내심과 배려가 있는 학생들이 없지는 않았기에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그건 나름대로 신기하고 괜찮은 경험이었다. 또한 문화 차이 때문에 공통된 주제를 찾기 힘든 미국인들보다 아무래도 정서가 비슷한 중국인, 일본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Asian들과 더 친해지기 쉬웠다. 사실 이것도 성격이 좋고 경계심이 1도 없으면 그냥 손에 손잡고 세계는 하나, 지구촌 모두가 친구들 수준으로 상관이 없어진다.

학업은 언제 어디서든 좋아하는 일 혹은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할 말이 딱히 없다. 그런데 웃긴 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다. 한국어로.

마지막으로 교환학생과는 딱히 정식으로 연관성이 없는 여행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는 다른 교환학생들에 비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과 여행, 두 가지였던 것 같다. 내 성격상 도시보다는 자연풍경을 더 좋아해서 마지막에 Grand Canyon, Yosemite National Park, Zion Canyon 등등 다섯 개쯤 되는 국립공원들을 여행했는데, 보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온갖 울분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지형, 예를 들어 사막이나 까마득한 고원, 끝이 안 보이는 평원에 서는 기분은 말로 못 할 만큼 짜릿했다. 물론 8시간을 메마른 사막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차로 달리는 건 끔찍했지만. 이왕 다른 나라에 간 거, 여행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난 딱히 모자라는 것 없이 완벽하거나 혹은 그에 가깝거나 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지는 않아서, 누군가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했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진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고. 하지만 좋은 운 덕에 만났던, 내 인생에서의 선생님 혹은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해줬던 좋은 사람들, 혼자 고뇌하고 뛰어다니면서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또 마냥 행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맺으면서 할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느님 부모님 선생님 교수님 친구님들 감사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ISU의 학생회관, Memorial Union



International Student 모임



Temporary Housing, New Year Party



홍콩, 싱가포르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



마지막 학기 끝나고 캠퍼스 기념촬영



Grand Canyon 여행